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이익공유 집중

전남도-시·군 공동운영지침협약 체결 민관협의회 구성·이익공유 방안 포함 입지 선정·수산업 공존 방안 주민 주도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이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연안 시·군과 공공이 주도해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군 해상풍력 공동운영지침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원조사, 계통연계 및 인허가 등 지원 ▲집적화단지 조성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이익공유 방안 마련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 정보 공유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내 부흥 조달 권장 ▲해상풍력 분야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개발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해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발전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때문에 관련 어업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 연안 시·군 곳곳에서 민원 발생의 온상이 됐다.

이에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적정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어업인, 발전사 모두가 상생하는 공동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운영지침에는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과 주민 이익공유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협의회는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 대표, 발전사, 시군,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해 적합 입지 선정, 기관별 의견 수렴, 수산업 공존 방안, 세부적인 민관

상생 협약 도출 등 중추 역할을 맡는다. 주민이익공유 방안과 관련해서 발생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발주 예정인 '주민참여모델 개발 연구 용역'의 과업 내용에 ▲주민참여형 최적 사업모델 개발 ▲발주법에 따른 발전사의 지원사업 연구 ▲상생협약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16개 연안 시군과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어업인의 신규 양식 기술 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과 연계한 주민 수익사업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농업기술원

국비 3억6천만원 확보

진도 강황 면역효능 규명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3일 "지역 특화작목인 진도 강황(사진)의 면역효능을 밝히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형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국비 3억 6000 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황은 북미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제과, 식품, 화장품 분야 기능성 소재로 각광받는 '커류민'을 3~4% 함유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진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60%인 28ha에서 연간 400여t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진도올금'으로 제95호 지리표시등록을 했다.

그러나 기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 부족으로 현재까지 '관절건강도움'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형으로 등록돼 있어 강황의 효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기원은 작년에 국비 1억원을 투입해 고초균(Bacillus sbutilis)에 대한 강한 항균력과 양성대조군 대비 산화질소 생성량을 39% 감소시키는 항염 효능을 확인했다.

전남농기원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기반으로

강황 소재 및 추출물의 표준화, 가공제품개발을 담당하고, 농촌진흥청은 면역 등 다양한 효능을 시험관 실험(in vitro)과 동물실험(in vivo)에서 확인해 임상테스트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체리' 신소득작목 육성...시험지 조성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여름철 대중적 과실로 각광받는 체리를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리나무 시험지를 조성했다. (사진) 시험지에는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인 산지재배형 체리를 임가에 보급하기 위해 지역적응성 시험 목적으로 개

밭한 지랏, 블랙펠, 슈미트 등 15개 품종을 심었다. 체리는 분류학상 장미과 빛나무속, 핵과류 열매로 벚치(Cherry)라 불린다. 새콤달콤한 식감, 특유의 향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제공>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원 용자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원을 연 1% 장기저리로 친환경농업 경영인에게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달 15일까지 친환경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자를 공모,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2건(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자금별로 운영자금 29건 62억원, 시설자금 13건 8억원이다.

운영자금은 주로 원료 구입과 친환경농자재 생산 등 소득증대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친환경농

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가공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으로 사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자금 상환조건을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기획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

전남의 과거·현재·미래 가장 잘 담아 낸 주제

포털사이트 등서 회자·인기

22일 개관식을 갖고 23일부터 일반인에게 내부를 공개한 전남도립미술관의 개관 특별기획전의 주제인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가 지역 내외에서 회자되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의 자연을 상징하면서도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배산임수(背山臨水)를 우리말로 풀어쓴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취락 조건이면서 풍수지리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도 이상적인 지형을 말한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개관'이라는 전남도립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첫 행사 주제를 고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찾은 진도 윤림산방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윤림산방은 진도 그림의 뿌리이자 한국 남화의 고향으로,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다. 침찰산 아래에 자리한 윤림산방의 앞

은 인공연못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관장은 "전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담아낼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는 압박이 강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도내 곳곳을 현장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가 전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관 특별기획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에는 3개국 1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기획전을 통해 전남미술사가 한국미술의 큰 획을 담당해왔으며 동시에 세계미술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도립미술관 측은 밝혔다. 직장인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옛 광양역터에 조성된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읍 순광로 660 일원 1만759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580㎡ 규모로 건립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속도...하반기 착공 내년말 준공

순천 신대지구에 지상 3층 규모 건립 6월 실시설계...탄소 제로 인증건물로

전남도가 동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다목적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동부권 통합청사를 올 하반기 착공해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비 387억 원을 들여 순천 신대지구 3만59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지난 2019년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취지에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전남1호 탄소 제로

(ZERO) 인증건물로 건립된다. 고기밀·고단열 건축시스템을 추가 반영하는 등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하도록 대강당, 다목적강좌실, 열린회의실, 북카페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영상)민원실 설치로 도청에 가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등 미래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를 건립한다.

전남 동부권역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 7개 시·군으로 전남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인 90만여 명이다. 현재 동부지역본부 청사는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 남약으로 이전하면서 동부출장소로 출발했다. 2018년 8월 민선7기 들어 1본부 6과 24팀에 산림자원연구소까지 포함해 본부체제로 확대 개편,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서면 도민 제일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제2청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

www.yhbeco.co.kr